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①

“분별 없는 깨끗함 바로 보라”

[원문]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金生死即時)
-가야산 해인사 법보전

[번역]

깨달음이 있는 곳은 그 어디인가?
지금 생과 사가 있는 이 자리다.

[선해(禪解)]

내가 불가(佛家)에 들어 온지도 벌써 오십 삼년
이 지났다. 나에게 출가(出家)의 의미는 매우 깊다.
절에 있는 문(門)의 의미는 세속의 문과는 상대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속가(俗家)에 있던 사람이 출
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게 바
로 절에 있는 문이다. 말하
자면 절의 문은 속세와 법
계(法界)의 경계인 것이다.

그런, 절의 문은 수행자
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
는 걸까? 절 문밖의 세상은
오욕락(五慾樂)으로 인
해 번뇌가 끊이지 않는
곳이요, 절 안의 세상은 바
로 깨달음이 있는 곳이다.
때문에 출가자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사문(沙門)이 될 수 있다.

해인사 법보전에 걸린 주련(柱聯)을 읽어보면
감히 그 깨달음의 극치를 온전하게 맞출 수가 있다.
그 어떤 깨달음도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말이 있
다. 깨달음을 달리 표현하면 열반·해탈·피안 등
수많은 언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이다.

나는 절의 문을 통과하면서 오직 부처가 되기 위
해 출가를 감행했다. 그리고 출가를 한지 무려 오
십 여 성상(星霜)이 흘러갔다. 그동안 나의 가사(袈
紗)에는 수없이 많은 무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려
얼어붙었으며 춥고 배고프고 견디기 힘든 세월의
때가 온전히 묻어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깨달
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 그만큼 부처의 길은
단 한순간에 올 수도 있으며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오직 마음 안에 있는 것
이다.

그동안 과연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 그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 순한 회향과 불굴의 정진
을 하면서도 결국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가 깨
달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절에 걸려 있는 주련의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매우 깊다. 모든 조사를 죽이고, 부
처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주련에
적힌 그 한 줄의 함축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 기둥에 적혀 있는 단 한

줄의 선구(禪句)는 그 절의 얼굴이며 그 법당(法堂)
의 직언(直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출가자는 주련에 적혀 있는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험부로 여겨서도 안 되며 마음 깊이 각
인(刻印)해야 한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수행자나 불자들은 주련에 적힌 부
처나 조사의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이
것은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모르는 것과 같고 수행
자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법도를 찾지 못하
는 것과 같다.

해인사 법보전에 적혀 있는 주련의 의미는 심히
마음 안에 큰 경종을 울리게 한다. 불가에는 피안
(彼岸)이란 말이 있다. 즉 깨달음이다. 그런데 그 피
안은 단순하게 말하면 '저쪽 세상'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쪽 세상'은 무엇일까? 바로 생사(生死)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제 온몸을 덮
었습니다.”

달마 대사는 깊은 생각에 잠시 잠가다가 이내 이
렇게 말을 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
음을 가져오너라.”

“그것은 행상이 없어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있었던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
음들은 이 순간 사라졌다. 내가 지금 그것들을 없
였노라.”

이 때부터 해가 스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매던 초
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음을 스스로 느
꼈다. 결국 해가 스님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때부
터 달마 대사의 제1 제자가 됐다. 그가 이렇게 큰
고승의 제자가 됐던 것은
폭설이 내리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달
마 대사를 만나겠다는 신
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으며 또한 하루아침에
큰 깨침을 이루게 됐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초조한 마
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져 오너라”에 있다. 이것이
바로 선이 추구하는 마음이다. 결국 마음이란 불안
한 것도 아니요, 초조한 것도 아니며, 또한 죄가 있
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
인가. 마음이란 분별하지 않는 깨끗함이다.

오늘 절을 찾아 가는 모든 불자들이 해가 스님이
가진 그 마음을 듣고 가라!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괴
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해인사 법보전에 있는 주련의 깊은 뜻은 바로 자
신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절문은 속세와 법계의 경계 출가자 반드시 통과해야
주련 의미 모르면 자식이 부모 이름 모르는 것과 같아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주련에는 깨달음이란 저쪽이 아닌 바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다분히 이속에는 선(禪)의 참맛
이 물씬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의 원류
는 달마선이 그 모태이다.

나는 오늘 날 많은 불자들에게 선사상(禪思想)을
이야기하면서 대체적으로 달마 대사와 해가 스님
에 대한 것을 많이 인용한다. 이 보다 더 쉽게 불자
들에게 선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스님은 혼자 수행을 하다가 도를 깨치지 못
해 어느 날 달마 대사를 찾아갔다. 마침 소림굴에
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달마 대사는 해가 스님의
인기척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면벽수행만
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달마 대사의 수행이 끝나기
만을 기다렸지만 눈이 쌓여 어느새 자기의 허리춤
까지 차올랐으며 강추위는 그의 몸을 얼어붙게 했
는데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달마 대사가 해가 스님
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누구이며, 어떻게 왔는가.”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도를 구하러 왔다고?”

“네, 달마 스님에게 제가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저도 수
행을 한다고 하지만 수행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며
또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언제부터 있었느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

마음 밖에 불성 따로 없다

[원문]

三界混起 同歸一心 前佛後佛 以心傳心 不立文
字.

삼계가 혼돈으로 일어나나 모두가 한마음(一心)
으로 돌아가는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이나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서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시
니, 본 바탕자리에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
는니라.

[해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깨달은 우주의 실상에
대해 법문하셨지만 하근기 중생들은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문을 계속 설해야 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제석천왕
의 세 번이나 간청하므로 <아
함경>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
가는 도리를 말씀하셨고, <반
야부>에서 진리의 실상을 말
씀하셨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이은
‘28대 조사’인 달마 스님도 성
불해 스승 반야다라 존자로부터
‘동쪽으로 가 법을 전하라’
는 부촉을 받고 중국으로 오서
서 처음에 선을 전하고자 했지
만, 교학이 성한 터라 선을 받
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
다. 양 무제를 통해서 선을 이
해시키려고 했지만 양 무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입니다. 또 문무백관을 상대로 <금강경>을 강의했
지만 그 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느껴서 소림굴로 들어가 9년 동안
면벽을 하시고 제자 헤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
서 법을 전하게 되었는데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
사가 되고 중국에서는 초조(初祖)가 됩니다.

달마 스님은 혈맥론(血脈論)에서 심외무불성(心
外無佛性) 즉, ‘마음 밖에는 불성이 없다’ 하는 법
문을 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크게 육계, 색계, 무색
계, 삼계에 나뉩니다. 육계는 우리가 사는 지옥으
로부터 육욕천까지 욕심을 끊지 못하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불교의 수행목적
은 깨달음에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해야
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믿는다
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달마 스님은 ‘우주의 실상인 진여당체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무슨 얘
기나 하면 지금 우리 의식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꿈을 꿀 때 사실이 아닌 것
임에도 꿈속에서 우리가 깰라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이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마
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경계 대상도 분
명히 사실이 아닌 것인데 사실인 것처럼 깰라려 가
고 있다 이겁니다.



중국 송산 소림굴에 조성된 달마 대사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알면서
도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끄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
잖아요. 것처럼 집착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수행
을 통해서 그동안 무수히 익혀온 습을 녹이는 것이
수행인 것입니다.

설탕도 분석해 들어가면 본래는 맛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본질은 모양이 없는 것이거든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야기 하는데 진
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문하시고는 한 마
디도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는 진리 실상 자리는
설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
다.

불교 핵심인 선 법문은 다
이 ‘모양 없는 바탕’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달마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착하면서
사는 세계가 바로 욕계라고 이
야기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
내재돼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
옥 중생으로부터 인간세계, 천
상세계, 육욕천까지 이렇게 육
심으로써 존재하는 세계를 육
계(欲界)라고 표현합니다.

색계(色界)는 수행을 통해서 욕심은 다 끊은 경계
입니다. 식욕, 수면, 명예욕이나 재물욕, 음욕까지
도 다 끊어졌지만 아직도 물질에 대한 집착만은 끊
지 못한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을 아직 끊
지 못하고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색계 18천입니다.

무색계(無色界)는 욕심도 다 끊어졌고 물질에 대
한 집착도 다 끊어졌지만, 아직도 마음이다 하는 생
각이 남아 있다 하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
니다. 무색계는 한두 생의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닙니다. 선에서 ‘견성성불(見性成
佛)이다’, 즉 견성하면 성불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욕
심등을 자제하게 될 때 참다운 성불이라 하겠지요.
아직도 물질에 끄달려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
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계, 색계, 무색계
를 윤회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달마 스님은 ‘삼계가 혼돈으로 일어나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설했습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도 본래는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납니
다. 마음이니, 부처님이니, 법이니, 불성이니, 법성
이니, 진여니, 진공이니, 반야니, 이런 표현들은 그
모양 없는 실상의 자리를 부득이 다양하게 표현하
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
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하는 말입니다.
■ 청주 해은사 주지

아바타 코스
다들 찾아 떠나는 9인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명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n@avata21.com

불자님을 위한 특별행사! 선착순 30분께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나산원통형 고효율 / 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업소용·농업용·사무실용

NS-7600
●회력의 강약조절, 강: 2.5W, 약: 1.2W.
●회전기능: 좌우 90도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중량: 약 8.5kg
●크기: 반사경(60cm) 높이: 135cm



NS-7800
●회력의 강약조절, 강: 1.8W, 약: 900W.
●회전기능: 좌우 90도
●높이조절: 상하, 135cm ~ 100cm
●중량: 약 6.5kg
●크기: 반사경(54cm) 높이: 135cm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1.8kwx8=978원



강력한 화력!
동급최대화력!
●4DD-2000(적용면적: 5평형)
열량 / 2W · 사이즈 / 270x470mm · 무게 / 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2.9kwx8=1,086원
특별할인가: 69,000원 (택배비 2,800원 소비자부담)

●NS-7000(적용면적: 10평형)
열량 / 2.9kW · 사이즈/355x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2.9kwx8=1,575원
특별할인가: 89,000원 (택배비 2,800원 소비자부담)

100% 국내산 / 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대워 실내가습하고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나산전기히터!